한나라 정몽준 대표직 승계하나

박희태 오늘 '양산행' 재보선 스타트
이재오 복귀 전망… 지도체제 급변 관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10월 양산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당 지도체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친이(친이명박) 주류 측이 구상하는 방향은 '박 대표의 대표직 사퇴 → 정몽준(MJ) 최고위원의 대표직 승계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당 복귀'. 정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할 경우 결원이 생기는 최고위원 한 자리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전 최고위원을 진출시키자는 것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박 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기정사실로 된 게 아니겠느냐"면서 "다만 향후 당 지도체제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만큼 입장표명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경우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당 복귀에 대한 친박 측의 용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친이 측에서는 '9월 조기 전당대회' 계획을 접는 대신 친박 측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그러한 과정(전국위원회)을 통해 당으로 복귀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며 "친박 인사들은 혹시 이 전 최고위원이 당으로 복귀했을 때 갈등의 진앙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오히려 통합의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전 최고위원은 조만간 있을 개각 때 입각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보다는 당 복귀를 통한 정치 재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 전 최고위원은 박희태 대표가 자신의 최고위원 자리와 공천 보장을 흥정하는 것처럼 비치는 현재의 논의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미루고 있는 것도 최고위원 자리를 매개로 친이 주류 측으로부터 공천을 보장받고, 친박 진영으로부터는 선거 지원을 받으려는 '절묘한 줄타기'라고 주류 측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최고위원의 한 측근은 "이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을 못해 안달이 난 것도 아니고, 내년 2월이든 7월이든 전당대회에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즉, 합의추대가 아닌 경선일 경우 최고위원 진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고 전국위원회에서 추인되는 형식이 돼야 최고위원 자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 측 일각에서도 이 같은 '이재오 당 복귀' 방안에 대해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격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친박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도 정권 창출에 기여한 분 아니냐"며 "다른 정치적 의도만 없다면, 또한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 진출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박희태 대표는 14일 '10월 재보선'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경남 양산을 방문한다. 이미 예정돼 있는 당 공식 행사이지만 이미 양산 출마 의사를 밝힌 박 대표로서는 출마지 '첫 답사'라는 의미와 함께 사실상 '출사표'를 던지는 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13일 오전 경남 창원공단 내 휴대전화 광학렌즈 제조업체인 창원옵텍을 찾아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왼쪽〉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당직자들이 13일 오후 전북 전주시청 광장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등원 논의할 시점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 전북 텃밭서 장외투쟁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전북 전주에서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한 선전전을 폈다.

당 지도부가 전주를 방문하기는 6월18일에 이어 두달 만이며 폭우로 인해 장외투쟁을 멈춘 지 하루 만에 지방순회 투쟁을 재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정 대표와 이 원내대표, 박주선 송영길 장상 최고위원과 의원 20여명 등 5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미디어법의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또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전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회에는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미디어법 처리의 법적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날 전북을 끝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 투어를 마치는 민주당은 14~15일 서울에서 소수야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동참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도부는 또 내주부터 원내 투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장외투쟁에서 민생문제의 비중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투쟁위 홍보본부장인 최재성 의원이 전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을 거의 다 돌아보니 언론악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결국은 국민 손해 보게 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언론악법이 무효가 될 때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직 9월 국회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면서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의사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기국회 조기 등원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국 아우를 정치인 못 키웠다"

DJ 건강 악화에 광주·전남 정치권 자성 목소리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건강 악화 사태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DJ의 뒤를 이을 만한 정치적 재목이 딱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3선 이상은 박상천, 김영진, 김효석, 이낙연, 김성곤, 유선호 의원 등 6명에 이르고 있으나 DJ 이후, 호남 정치를 견인할만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을 갖춘 중진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각각 나름대로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정치적 비전 제시를 통한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다선 의원들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포스트 DJ 역할을 수행할 만한 정치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선 그룹과 재선 그룹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평가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정치 질서에 대한 과감한 문제 제기보다는 오히려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치면서 정치적 미래를 키워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전남지역 모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는 지역 정치권의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김 전 대통령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별다른 타개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리더십의 부재는 지역 정치권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역 정치권은 18대 국회 들어 '5+2 광역경제권' 설정, F1 지원법, J-프로젝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 현안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력을 바탕으로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지 못한 것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DJ의 건강 악화는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리더십 창출'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정치적 리더십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투쟁에 의해 창출된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과감한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DJ, 이번에도 인동초처럼…"

생환 36주년 기념 미사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입원 32일째인 13일 병상에서 '도쿄 피랍' 생환 36주년을 맞았다.

생환기념일을 맞아 가족과 측근, 각계 인사들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36년 전처럼 김 전 대통령이 병환을 극복하기를 기원했다.

이날 36주년 행사는 김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세브란스 병원 9층 중환자실에서 부인 이희호 여사와 아들 홍업, 홍걸씨 내외, 손자 2명 등 직계가족과 윤일선 서교동 성당 주임신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기도회 형식으로 조촐하게 10분간 진행됐다.

또, 병원 6층 예배실에서 76년 '구국선언'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함세웅 신부와 권노갑, 한광옥, 김옥두 전 의원 등 가신 그룹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환 기념 및 쾌유 기원 미사를 진행됐다.

특히, 부축을 받고 들어온 이 여사는 미사 도중 눈물을 계속 흘렸고 피랍 당시 비서였던 김옥두 전 의원이 울음을 참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와 예배실은 시종 숙연함이 감돌았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73년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에게 납치돼 수장될 뻔 했으나 미국의 도움으로 닷새 만인 13일 밤 동교동 자택 근처에 눈과 손발에 붕대가 감긴 채 발견됐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생환 35주년 행사에서 "일생 공산당에 1번, 군사독재 때 4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정말 잘 견뎠다고 스스로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최경환 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의 병세에 대해 "지난 9일 위급 상황에서 벗어났으며 엑스레이 촬영 결과와 건강 수치상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檢, 박연차 구속집행정지 4주 연장

신병 치료를 위해 구속에서 풀려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주간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이 14일로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6주 늘려달라고 신청했으나 4주 후인 9월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상동맥 수술 이후 결과가 좋지 않아 계획했던 요추와 경추 디스크 수술을 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연장 신청 사유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3주간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하면서 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변호인 3명을 제외하고 누구도 접견할 수 없으며 출석을 요구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연합뉴스